고려사경서 온 2020사경

제4회 선경사경연구회전

갤러리 라메르 2월 19~25일



이윤용 作 '반야심경'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새로운 모습의 사경전이 열린다. 2020년에서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경은 어떤 것일까. 우리 사경의 전통을 철저하게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사경을 모색하는 선광사경연구회(회장 배옥영)가 2월 19일(개막식 오후 4시)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라메르에서 네 번째 회원전 '선광사경연구회전' 을 개최한다.

주로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회원들이 3년여 동안 준비한 이번 전시에서는 경전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서사재료에 있어서도 사경지에 국한하지 않고 한지와 비단, 돌 등 다양한 소재로 폭을 넓혔다. 또

다양성 위해 종교 경계 허물고
한지 · 비단 · 돌 등 재료 다양
불과 끌 등 다양한 서사 도구
한자 · 한글 서체 변용 새 문양

한 금니, 은니, 주사, 먹, 주목, 채색화물감 등과 불, 끌 등 다양한 서사 도구를 과감하게 수용했으며, 한자 서체와 한글 서체의 변용을 시도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변상도와 함께 새로운 문양의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사경의 전통을 확인하고 한국 사경을 확장시켰다.

경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사경은 신앙적 의미를 지닌 공덕경으로, 경전을 서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고, 수행자가 독송하고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서사의 공덕을 위한 것이다.

우리 전통 사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사경은 신앙적인 면이 강조된 장식경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경을 감싸주는 겉표지그림에는 금 · 은니로 보상당초문을, 안표지 그림에는 경전의 내용을 쉽게 묘사한 변상도가 금니로 각각 그려져 있다. 사경의 형상은 권자본(卷子本 · 두루말이 형태의 책)과 절본(折本 · 접는 책)이 있는데 보통 절본이 많이 남아 있다. 종이는 짙은 감색 한지가 많이 쓰였으며,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금강경〉 〈부모은중경〉 등이 주로 서사됐다.

충렬왕 이후 원나라가 사경승과 경지를 요구했다는 여러 문헌과 비문의 기록에서 고려사경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도 우수한 고려사경의 전통을 이은 사경들이 많이 조성됐지만 초기 이후부터는 고려 전통을 이은 금자사경과 은자사경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방면으로 복원과 발전 과정에 있는 현대의 우리 사경에서 선광사경연구회의 쉼 없는 모색은 또 다른 전통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광사경연구회 회원들은 작품을 준비하는 내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성인의 말씀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글자 한 자 한 자에 일념을 담아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배옥영 회장은 "사경은 일반 서예와 달리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 오롯한 마음으로 성인의 말씀과 하나 되어 깊은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는 신심의 환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며 "새로운 시도는 늘 낯설음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번 전시는 우리 선광사경연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한 번의 걸음이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선광사경연구회의 이번 회원전은 서울 전시를 마치고 대전에서 이어진다. 2월 27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3월 4일까지 대전갤러리(대전평생학습관 내)에서 열린다.

선광사경연구회는 2006년, 전통사경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경을 통해 삶의 정화를 실천하고자 원광사경연구회로 시작했다. 2008년에 갤러리 라메르에서 창립전을 개최했으며, 2011년에 두 번째 회원전을 열었다. 2015년 4월 12일 선광사경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17년에 세 번째 회원전을 개최했다. (02)730-5454.



정은혜 作, '피어오르다'

동물 얼굴에 인간 담다

전등사 공모선정 작가 전시회
정은혜 '우리 사이의 동물들'展
2월 15일~5월 15일 무설전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전시가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무설전 서운갤러리에서 전시지원 공모 선정 작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2019년 선정된 작가 중 한경희 작가에 이어 이번엔 정은혜 작가의 '우리 사이의 동물들' 展이다.

전시는 도자로 구워낸 동물들의 살아있는 표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작품은 소, 닭, 돼지 등을 의인화해 다양한 표정들을 담고 있다. 작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생각이다. 저마다 생김이 다르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삶을 타고난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예술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바라본다.

작품의 소재로 쓰인 소, 닭, 돼지 등은 우리 인간의 삶과 너무나 가까운 생명들이다. 병아리를 업고 있는 어미 닭, 연꽃 위에 앉은 돼지, '너는 늙어봤냐'는 제목의 늙은 소 등 작가는 동물들의 얼굴에 인간의 표정을 담아내는 것으로 생명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동물도 우리처럼 울고 웃고 늙어가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또한 인류가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묻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정은혜 작가의 작업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보다 한걸음 더 앞서 있다. 인간의 오랜 반려동물인 개와 식용동물인 소, 돼지, 닭을 의인화해서 도자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해학과 유머로 재해석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공생의 관계임을 역설한다. 도자라는 형식을 통해 동물들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전등사는 2020년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사업을 15일간 진행했다. 총 67명의 작가들이 지원했으며 현재 심사중이다.

박재완 기자

VR과 AR로 만나는 석굴암

고궁博 '디지털문화유산 나눔방'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로 석굴암 등 우리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월 4일 국립고궁박물관 1층 카페 안에 '디지털문화유산 나눔방(이하 나눔방)' 을 개설했다.

세 구역으로 구성된 나눔방은 문화유산과 디지털기술이 만나는 신개념 체험 · 휴식 공간으로 VR과 AR 등 실감콘텐츠를 활용해 관객들이 직접 문화재를 체험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도록 꾸며졌다.

△문화유산을 3차원 입체(3D)로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Interactive media wall)과 △창덕궁을 디지털 기술로 담은 다면 미디어아트 영상체험구역, △수원화성과 고인돌 ·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주제로 만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구역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 의 경우 벽면에 최신 기술로 제작한 창경궁 · 한국의 사찰 · 소쇄원 · 하회탈 · 프랙탈 아트 등 5편의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3차원 입체(3D) 영상으로 문화유산들을 체험할 수 있다. 비치해 놓은 디지털기기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면 미디어아트 영상은 창덕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 면에 걸쳐 디지털 기술로 담았고, '가상현실 · 증강현실' 실감체험은 특수제작한 기술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나눔방 안 서가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각종 국내여행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문화재 관련 전문서적과 어린이 역사책, 신간 문학도서 등 1000여 권의 책들을 비치해 음료를 마시고 안락하게 독서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2020 행복이야기 UCC영상 공모전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교수불자연합회는 2020 행복이야기 UCC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는 불교의 지혜, 자비, 정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유로운 영상이다. 참가대상은 초 · 중 · 고 · 대학생이며 개인 및 단체 모두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합격자는 4월초 개별 통지하며, 4월말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이며 체출은 이메일 (gby2010@hanmail.net)로 하고, 양식은 (사)교수불자연합회에서 내려 받는다.

출품규격은 30초 이상 영상으로, 해상도는 1280×720(HD 해상도) 이상이다.

시상내역은 △대상 - 1인 또는 1팀 100만원(상금 및 상패) △우수상 - (4인 또는 4팀) 각 50만원(상금 및 상패) △장려상 (4인 또는 4팀) 각 30만원(상금 및 상장) △아차상 - 상품 및 상장이다. 문의 (02)720-6618.

박재완 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 무 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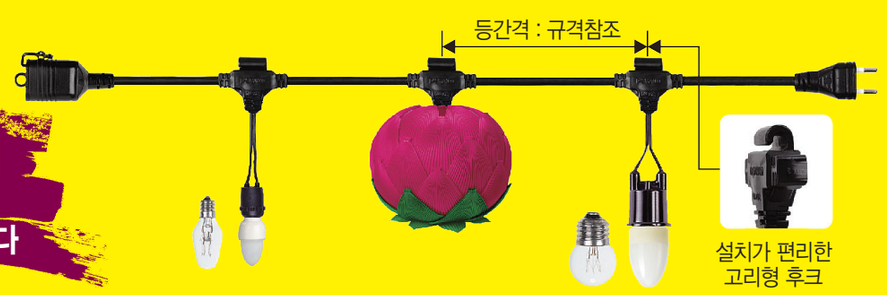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령, 관욕의식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사찰 연등 및 전선 전선간격 :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ISO 9001 인증기업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